

# “삼별초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 더했죠”

엄수경 동화작가 ‘삼별초...’ 출간  
여몽 연합군에 항거한 활약상 그려  
현장 사진 배치·잇혀진 우리말 사용  
구어체로 이야기 들려주듯 풀어내

삼별초는 고려시대 대몽항쟁기에 활약을 펼쳤던 군사집단이다. 이들은 무인정권이 붕괴되고 고려가 몽골에 패배하자 독자적인 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진도를 본거지로 싸우다가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섬멸당하지만 우리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엄수경 동화작가

엄수경 동화작가가 삼별초를 모티브로 장편 동화를 펴내 눈길을 끈다.

“삼별초, 사라진 왕국을 찾아서”는 엄 작가가 삼별초의 흔적을 남긴 역사적 공간을 직접 답사하며 완성한 작품이다.

“진도를 비롯해 제주도, 그리고 강화도까지 답사하며 사라진 이야기를 새롭게 형상화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삼별초 고려왕국이 융성산성에 궁궐을 짓고 1년 여를 여몽연합군에 항거한 사실을 생생한 이야기로 구현하는 게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엄 작가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삼별초 고려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깊이 숙고했다. 평소 문화현장에서 역사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부지런히 셔터를 눌러대던 그것기에 관심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막상 “따끈따끈하면서도 묵직한” 장편동화를 건네자 그동안의 부지런한 활동들에 담긴 뜻의 의미가 비로소 짐작이 되었다.

그는 “진도 민속조사에서 750년이 지난 삼별초 관련 지명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삼별초 동화를 써보자 생각하고 몇 번을 반복해서 더 가봤다”고 말했다.

특히 작가는 이번 작품의 대부분을 구어체로 완성했다. 니 단어와 송성 등 등장인물을 좀더 생생하게 그려내기 위한 의

도였고 한편으로 잊혀져가는 우리말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의미도 담겨 있었다.

“니단어, 두바, 시바, 육바 등 등장하는 여러 인물 이름은 진도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명칭입니다. ‘알라차’와 같은 잇혀진 감탄사를 찾아내 독자들이 하여금 우리말의 존중독한 맛을 알게 하고 싶었죠.”

그의 말에서 작품 창작에 임하는 그의 지향점이랄까, 관점이 느껴졌다. 엄 작가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입말을 쓰게 됐고 가능한 우리말을 쓰게 됐다”고 부연했다.

작품에서 마치 독자들 그곳에 초대할 듯한 현장감이 느껴지는 건 그런 이유다. 이야기 곳곳에 삼별초 현장이 담긴 사

진을 배치한 것도 그런 기획 의도와 무관치 않다.

“삼별초 역사적 사실과 제 상상력이 더해진 이야기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기와 그들이 꿈꾸었던 해양왕국을 멋지게 펼쳐 보이고 싶었죠. 한마디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종의 눈 맞추기,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역사 바로 세우기와 같은 거대 담론은 아닐지라도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 ‘임나일본부설’ 같은 주장의 허구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죠.”

엄 작가는 동화 창작 외에도 민속이나 사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민속조사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것과 관련 의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다.

“몇 해 전 영암 갈매마을을 벵농사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 어른들을 만나 벵농사 과정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지요. 못자리부터 벵 수확할 때까지 조사를 다니며 사진을 찍었는데, 새해가 됐을 때 달력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달력에 제가 찍은 사진이 거의 들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웠습니다.”

엄 작가는 “사진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좋은 사진을 찍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다”고 했다. 평생교육원에서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운 것은 그때부터였다. 현재는 기록사진을 찍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중 변하지 않았던 공간과 광주제갈밭 현장을 담고 있다. 목욕사건과 한국현대사건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사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은 욕망”이라는 말은 “사진은 내 눈으로 본 이야기를 담은 행위”라는 의미와 상통했다.

그는 동화 외에 소설도 쓰고 시도 쓴다. 끊임없이 창작이라는 매개를 통해 독자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싶은 것이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다른 공간에서 일어났던 주요한 역사적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이 돌아왔다.

“제주 4·3항쟁을 비롯해 백제 이야기, 그리고 사라진 역사를 찾아 이야기도 듣고 사진도 찍고 싶어요. 그것을 모티브로 사진 이야기를 펴낼 예정입니다.”

한편 엄 작가는 광주여대에서 문예창작을, 목포대 대학원에서 민속학을 공부했으며 지역 신문문예에 동화가 당선돼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창작소리 동화 ‘코 없는 벵수’를 발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슬램덩크’ 돌풍



영화 200만 관객...만화 60만부 판매

‘슬램덩크’ 열풍이 극장가와 서점가로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인기 만화 ‘슬램덩크’를 스크린에 옮긴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1일 200만 관객을 넘어섰다. 배급사인 NEW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이날 오전 누적 관객 수가 201만 1000 명을 기록했다.

‘슬램덩크’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일본의 ‘주간 소년 점프’에 연재된 만화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농구 붐’을 일으킬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슬램덩크’의 원작자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직접 각본과 감독을 맡으면서 제작 때부터 관심을 불러왔다. 이 작품은 지난달 27일부터 5일간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청소년 시절 ‘슬램덩크’ 만화를 기억하는 30~40대의 향수를 자극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슬램덩크 만화 단행본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1일 만화출판사 대원씨아이에 따르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개봉일인 지난달 4일부터 현재까지 슬램덩크 신장재판판 판매 부수는 약 60만 부로 집계됐다.

판매 수요를 맞추기 위해 추가 발주한 물량까지 합치면 3월 초에는 100만 부를 기록할 것으로 대원씨아이 측은 예상했다. 대원씨아이 관계자는 “(단행본을) 계속 찍고 있는데 수요를 다 못 맞추고 있다”며 “서점에 20만 부씩 보내고 있는데도 동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슬램덩크 신장재판판은 오리지널 31권을 재편집해 내놓은 총 20권짜리 시리즈 만화다. 애니메이션이 입소문을 타면서 확장 시절 슬램덩크를 즐겨봤던 30~40대의 향수를 자극했고, 과거 빌려 보던 만화를 이제는 소장할 수 있을 정도로 구매력이 향상된 30~40대 팬층에 힘입어 단행본 판매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원씨아이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과 작가 인터뷰 등이 담긴 ‘슬램덩크 리소스’도 이달 발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낮선 상상력으로 그려낸 모순과 분열

곡성 출신 김지원 작가, 첫 소설집 ‘북쪽 마녀의 비밀 정원’ 펴내

창작활동을 ‘다중인격자의 도작적 소설 쓰기’라 말하는 이가 있다. 매우 이색적이면서도 ‘불온한’ 정이다.

사실 모든 소설가는 ‘다중인격자’라 할 수 있다. 많은 작품에 자신의 페르소나를 투영하거나, 은근슬쩍 작가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신의 이야기를 쓴 사람 이야기하듯 풀어내기 때문이다.

곡성 출신 김지원 작가(51)가 첫 번째 창작집 ‘북쪽 마녀의 비밀 정원’ (문학들)을 펴냈다.

작가에 따르면 18세에 첫 소설을 썼으니 33년 만에 창작집을 엮어낸 셈이다. 작가는 “다중인격자의 소설 쓰기”라 명했지만 정작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 “예측 가능한 재미없는 대답을 하고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준법 시민”이 바로 작가다.

그러나 이번 소설집에는 낯선 ‘고딕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모두 7편의 소설은 “특유의 고딕 장르는 설정을 통해 긴장과 스타일을 자아내”는 특징을 지닌다. 한 영인 문학평론가는 긴장과 스타일의 효과에 대해 “단지 감각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넘어 한 사회가 지닌 모순과 분열의 양상을 환기시킨다”고 평한다.

고딕 소설은 중세풍의 성인 수도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신비한 사건을 다룬 작품을 일컫는다. 비밀 통로나 지하감옥 등의 공간이 연상되는 작품은 독자들에게 불안과 서스펜스를 선사한다.

표제작 ‘북쪽 마녀의 비밀 정원’은 주인공이 옛 목조주택의 화재 사건을 접하며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기억을 마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목조주택은 일제강점기 총독부 관리가 애



첩을 위해 지었던 곳이다. 주인은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늙은 여인이다. 공간을 예리하게 투사하고 이를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작가의 입심이 만만치 않다. 허구와 실재를 넘나드는 이야기 방식은 입체적이며 역동적이다.

채희운 소설가는 “김지원 소설의 매력은 그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세계일 것이다. 상상력의 프리즘을 투과하여 문자로 내려앉은 김지원 소설은 마치 평면 스크린 위에 울음이 부감시켜 옷감의 직조를 입체로 보여 주는 듯하다”고 평한다.

한편 김지원 작가는 전남대 농업경제학과와 조선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으며 2018년 ‘문학들’ 가을호에 소설 부문 신인상으로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BTS 공연 실황 영화 예매 1위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가 개봉을 하루 앞두고 예매율 1위에 올랐다.

지난 3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BTS: 옛 투 컴 인 시네마’는 이날 오후 7시 15분께 실시간 예매율 26.1%(4만9000여 명)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아바타: 물의 길’이 17.0%(3만 2000여 명)로 2위를 기록했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16.8%(3만1000여 명)로 뒤를 이었다.

CGV에서 단독 개봉하는 ‘BTS: 옛 투 컴 인 시네마’는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BTS 콘서트 ‘옛 투 컴 인 부산’을 기록한 작품이다.

앞서 2019년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 2020년 아이즈원의 ‘아이즈 온 미: 더 무비’와 ‘내일은 미스터트롯’ 공연을 담은 ‘미스터트롯: 더 무비’ 등도 실시간 예매율 1위를 차지했지만 콘서트 실황 영화가 예매율 선두를 달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